

## 포스트모더니즘시대의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알레고리적 표현양식

박길순·이수인\*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다의성과 애매성으로 인하여 기의와 기표의 뚜렷한 관계가 붕괴되고 정확한 의사소통이 어렵게 되었다. 더 이상의 주체를 반영하는 거울이라는 대상의 입장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애매한 의미구조 현상은 헤어스타일의 의미구조에도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거의 설명 불가능한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의미를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오웬스의 알레고리적 의미로 이해하여 그 표현방식을 구체화하고 체계화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포스트모더니즘과 알레고리적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헤어스타일을 분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애매하고 모호한 성격과 표현양식의 특성을 유출하였다. 그 내용은 첫째, 차용의 개념으로 주변 것을 부상시켜 복제, 모방을 통하여 탈중심적인 성격을 제시하였다. 그에 의하여 패러디, 키치, 패스티쉬와 같은 표현양식이 나타났다. 따라서 머리의 장식을 전에는 보지 못했던 현상복제나 대상모방을 하여 장식하였지만 사실이 아닌 또다른 텍스트를 전달시키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둘째, 장소성의 개념으로 장소에 따른 비결정성과 불확정성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잠재적 형태나 역동적 디자인을 통하여 표현하고 있다. 이는 머리의 길이와 질감을 이용하여 바람이나 인체의 움직임에 의해 이루어지는 조형의 세계를 기대한다. 즉 정확하고 결정적인 형태가 아니라 잠재적인 형태로 헤어스타일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누적과 병렬의 개념으로 전혀 연관없는 것들과 이것저것을 연결시키고 배열하고 나열하여 새로운 장르를 창출시키는 것으로 주로 플라췌기법의 표현양식을 통하여 헤어스타일이 보여졌다.

이와같이 본 연구를 통하여 알레고리적 개념에 나타난 표현양식은 헤어스타일의 표현세계의 열린 의미구조를 인정하면서 그 표현세계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음이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다.